

울주지역 옹기가마 분포와 수습유물

배 보 니*

<목 차>

- I. 머리말
- II. 가마의 분포와 현황
- III. 수습된 유물
- IV. 유물의 특징과 제작시기
- V. 맺음말

국문요약

옹기는 우리 민중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기물로써 민중생활과 항상 함께한 옹기 중의 하나이다. 옹기는 일반 반상기용의 자기류와 함께 식품을 저장하거나 운반하는 옹기로써 최근까지 가장 널리 사용된 도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동안 관계연구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서 그 시원을 비롯한 전과과정, 용도, 기종 등의 구체적인 연구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연구는 울주군 내 분포하는 조선시대 옹기가마에 관한 지표조사 과정에서 총 12곳의 유적을 확인하고 이를 정리한 결과이다.

울주군 내에는 16세기~17세기에 해당하는 동천리 옹기가마를 비롯해서 조선시대 중후반기에 주로 옹기조업이 이루어졌고, 온양읍 외고산 마을 주변에는 현재까지도 옹기조업이 행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찻물이 시유된 옹기가 확인된 가장 이른 시기의 유적은 15세기~16세기경에 해당하는 청도 순지리와 나주 우산리유적으로 확인되어 조선전기부터 옹기소성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전국에서 약 20여곳의 옹기가

본 원고는 울주군의 용역을 받아 부산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실시한 '울주 옹기사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던 보고서를 수정·가필하였다.

* 동양문화연구원 연구원

마 유적이 발굴조사되었다. 울주군은 지금까지 확인된 12곳 가운데 16세기~17세기에 해당하는 것이 1곳, 17세기~18세기에 해당하는 것이 1곳, 18세기~19세기에 해당하는 것이 10곳으로 파악되어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옹기조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이미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17~18세기경의 덕현리유적과 18~19세기경의 천천리 및 방리유적의 조사성과에서 울주군 내 옹기생산 현황이 확인되고, 『蔚山邑誌』에 보이는 '旧營店', '内基店' 등의 문헌기록을 이번 조사를 통해 그 실체 파악이 가능하여 19세기 이후의 옹기생산 연구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 연구결과는 울주군 내 옹기가마의 분포현황을 확인한 부분적인 성과에 지나지 않는다. 추후 이 지역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가 좀 더 이루어진다면 울주군은 물론, 인접한 경상도지역 옹기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울주 옹기의 생산과 공급에 관한 사실들도 점차 규명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옹기, 옹기가마, 울주군, 조선시대, 외고산, 옹기

I. 머리말

甕器¹⁾는 우리 민중이 오랫동안 사용하였던 기물 중에 하나로 민중의 생활과 항상 함께 하여온 용기 중의 하나이다. 용기는 반상기용 자기류와 함께 식품의 저장·운반용기로써 근대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어진 도자기²⁾의 하나이다. 그러나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서 이 방면연구는 초보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용기가 조선 후기 또는 근대 작품이라는 인식에서 고고유물로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요지, 건물지, 성곽 등의 고고학적 조사에서 확인된 유물 중 용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양에 이르러 되었으며 용기를 전용으로 소성한 가마도 상당수 보고되었다.³⁾ 또 용기가 조선시대 전

1) 『甕器』의 개념에 관해서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용기'는 형태적인 관점에서 독의 개념을 전제로 하여 그 연원을 선사시대 토기에서 유래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본고에서는 갯물(오깃물)을 입혀서 구워낸 '오지그릇'의 개념으로 한정하여 정의하기로 한다.

정병탁, 1998, 『용기와의 대화』, 용기민속박물관, 116쪽.; 나선화, 2000, '용기연원 고찰', 『제3의 전통, 용기의 원류를 찾아서』,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배보너, 2005, 『조선시대 영남지방 용기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5쪽.; 윤용이, 2009, '독의 개념과 성립 고찰', 『울산세계용기문화엑스포 국제학술집』, 울산세계용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영남대학교.

2) 『陶磁器』는 陶器와 磁器를 통칭하는 용이로써 용기를 시유도기의 하위범주에 포함시켜 용기 역시 도자기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가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하지만 현재 통용되고 있는 도기와 자기의 용어는 『世宗實錄地理志』의 도기소, 자기소를 통한 검증작업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자학계에서도 개념정립이 명확하지 못한 상황이며, 토기와 도기 또한 그 경계가 모호하다. 필자는 '陶器'를 흙으로 만든 그릇을 통칭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전체하고 도기를 현재 통칭되는 '무유도기'와 '시유도기'로 구분하여 '무유도기' 개념 안에 토기 등을 포함하고, '시유도기' 개념 안에 고려시대 이후의 각종 시유도기와 용기 등을 포함하고자 한다. 『磁器』는 정선전 고령토를 이용하여 투명유를 시유하여 고온 소성한 것으로 고려시대 이후의 청자, 분청자, 백자를 칭하는 개념이다. '용기'와 함께 '도기'의 개념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하동 고이리유적』, 1990, 경상대학교박물관.; '칠곡 가천동 용기요지', 『대구-춘천간 고속도로 예정지역내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 1991, 경북대학교박물관.; 『청도 순저리 용기가마터』, 1994, 경남대학교박물관.; 『사천 류천리 제민창지』, 1996, 경상대학교박물관.; 『나주 우산리요지』, 2003, 호남문화재연구원.; 『사천시 사남면 우천리 도요지 발굴조사 결과약보』, 2003, 경남문화재연구원.; 『경주 월산리유적』, 2003,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울산 천천리유적(Ⅰ)』, 2004,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울산 방리유적(Ⅱ)』, 2004,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해남 백아리요지』, 2004, 호남문화재연구원.; 『강서죽도성지 附·부산 정관 용기가마터』, 2006, 동아대학교박물관.; 『청원 쌍청리유적』, 2006, 중앙문화재연구원.; 『울주 덕현리유적』, 2007, 울산문화재연구원.; 『영천 해선리 용기·목탄오 유적』, 2007, 성림문화재연구원.; 『고흥 성기리 기와가마』, 2007, 남도문화재연구원.; 『강진 월하리유적』, 2009, 호남문화재연구원.; 『순천 건천유적』, 2009, 호남문화재연구원.; 『인천 영종도유적』, 2009, 고려문화재연구원.; 『칠곡 봉계리유적』

반에 걸쳐 전국적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서 그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필자도 조선시대 용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⁴⁾, 학계에서도 예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⁵⁾

특히, 2010 울주군에서는 외고산 용기마을을 중심으로 '제10회 용기엑스포'가 개최되면서 엑스포 행사 일환으로 '국제 학술대회'도 이루어졌고⁶⁾ '울주 용기사 연구'에 관한 학술용역 추진과정에서 울주군 내 분포하는 용기가마에 대한 지표조사도 실시되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전기한 지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울주군 내 용기가마 분포와 현황, 그리고 수습된 유물을 중심으로 울주지역 용기의 특징과 제작시기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II. 가마의 분포와 현황

지금까지 울주군 내에서 용기가마가 발굴조사되어 보고서가 간행된 곳은 천천리유적, 방리유적, 덕현리유적 3개소이다.⁷⁾ 그리고 지표조사 과정에서 용기가마로 보고된 것은 동천리유적, 척파리유적, 고산리유적이 있다.⁸⁾ 그 밖에 군내에 분포하고 있는 용기가마를 확인하기 위해 각 읍·면지⁹⁾의 가마의 존재에 관한

(II)』, 2010, 경북문화재연구원.; 『영주 상줄동 산 3-6유적』, 2010, 대동문화재연구원.; 『용인 공세동 불당골 사지 및 사기마cul 요지』, 2010, 불교문화재연구원.

4) 배보너, 2005, 『조선시대 영남지방 용기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2006, 『조선시대 영남지방 용기에 관한 연구-제작기법과 관련된 특징을 중심으로』, 『문화연구』 제10호.; 2007, '사천 우천리 유물을 통해 본 조선시대 용기의 특징', 『경문논총』 창간호. 5) 용기가마에 관한 조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다른 생산유적 및 생활유적에서 출토된 용기 유물의 보고에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6) 『울산세계용기문화엑스포 국제학술집』, 울산세계용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영남대학교, 2009.

7) 『울산 천천리유적(Ⅰ)』, 2004,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울산 하삼정 유적·방리 용기요지-울산 권 광역상수도(대곡댐)사업 편입부지내 3차 발굴조사』, 2007,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울주 덕현리유적』, 2007, 울산문화재연구원.

8) 『문화유적분포지도-울주군』, 2003, 울산광역시.

9) 『언양읍지』, 2001, 언양읍지발간추진위원회.; 『두서면지』, 2001, 두서면지편찬위원회.; 『두동면지』, 2001, 두동면지편찬위원회.; 『범서읍지』, 2002, 범서읍지편찬위원회.; 『삼남면지』, 2002, 삼남면지편찬위원회.; 『삼동면지』, 2002, 삼동면지발간추진위원회.; 『청량면지』, 2002, 청량면지편찬위원회.; 『용촌면지』, 2002, 용촌면지편찬위원회.; 『은양읍지』, 2002, 은양읍지편찬위원회.; 『은산읍지』, 2002, 은산읍지간행위원회.

기록과 울주의 지명에 관한 문헌¹⁰⁾에서 웅기소성이 파악된 마을을 답사하여 아래와 같이 12곳의 유적을 확인하였다.¹¹⁾ 각 유적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울주지역 웅기가마 현황

연번	구분	유적명	기조사기관	입지 ¹²⁾
1		봉계리 점골 웅기가마	·	두들저수지 내
2	두동면	방리 웅기가마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7	대곡천 약 150m
3		천전리 웅기가마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4	대곡천 약 30m
4		덕현리 웅기가마	울산문화재연구원, 2007	덕현천 약 100m
5	연양읍	평리 점말 웅기가마	·	오룡저수지 약 20m
6	범서읍	척과리 웅기가마	울산광역시, 2003	반용저수지 약 400m
7		구영리 점촌 웅기가마	·	태화강 약 150m
8	용촌면	초천리 내기 웅기가마①	·	회야강 약 500m
9		초천리 내기 웅기가마②	·	
10	청량면	동천리 웅기가마	울산광역시, 2003	회야강 약 600m
11	온양읍	고산리 웅기가마	울산광역시, 2003	고산천지류 약 40m
12	온산읍	덕신리 오산 웅기가마	·	회야강 약 150m

1. 봉계리 점골 웅기가마

한국지명총람에 중리 서쪽에 웅기점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¹³⁾ 조사결과 점골 웅기가마는 봉계리 중리마을 맞은편에 위치하는 두들저수지의 북서쪽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다. 원래 두들저수지 수몰구간이었으나 조사 당시 저수지 공사 작업으로 바닥이 드러난 상태여서 조사가 가능하였다. 저수지의 북서쪽 100여 m 지점 일대에 다양한 웅기편과 가마 벽체편이 수습되어 다수의 가마가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10) 『한국지명총람9(경남편)』, 2003, 한글학회. ; 『울주지명사』, 1986, 울산문화원.

11) 기존의 조사와 이번 조사를 통해 울주군 내에서는 총 21곳의 웅기가마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문헌기록만 있을 뿐 실제 유적의 존재확인이 불가능했던 1곳과 일제시대 이후 20세기에 조업이 이루어진 6곳, 그리고 소편의 유물이 소량 수습되어 시기판단이 어려운 2곳은 본고의 검토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20세기에 해당하는 유적은 수습된 유물도 소량이며, 웅기의 형태가 근래의 웅기와 제작기법 및 형태상 특징이 유사하며, 근대 웅기는 조선시대 웅기와는 다른 관점에서 고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울주웅기사-학술조사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2010, 울주군·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2) 김광욱, 2010, '울주지역 웅기가마 분포에 관한 연구', 『울주웅기사-학술조사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울주군·부산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3) 한글학회, 앞의 책.

2. 방리 웅기가마¹⁴⁾

방리 가마는 울산권 광역상수도(대곡댐)사업 편입부지 내에 위치하였다. 방리 웅기가마터(방리유적Ⅲ)는 대곡댐 수몰지구 가운데 하류쪽에 해당하며 서쪽으로 약 350m 정도 떨어져서 대곡천이 서에서 동으로 흐르고 있다. 조사지역은 전반적으로 비교적 완만한 구릉 사면으로 대부분 밭으로 경작되고 서쪽 구릉 하단은 논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조사결과 조선시대 웅기가마 1기와 관련 폐기장, 그리고 가마의 작업시설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주철이 확인되었다.

3. 천전리 웅기가마¹⁵⁾

천전리유적은 대곡댐 편입부지이며 2001년에서 2002년에 걸쳐서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지역은 울산광역시 두동면 천전리 전 262번지 외 2필지에 걸쳐있다. 웅기가마는 1기인데 주변에 관련 폐기장 3곳과 경사지 아래에 회원부가 넓게 퇴적되어 있다. 유구는 대곡댐 배후도로 건설로 교란되어 중간부분이 대부분 결실되었다. 가마는 소성실 일부만 잔존하였는데 구조는 반지하식 등이다. 규모는 잔존길이 약 160cm, 너비 200cm, 잔존깊이 약 50cm 정도로 거의 바닥만 남아있었다.

4. 덕현리 웅기가마¹⁶⁾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145-8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고현산에서 뻗어 내려오는 남동 구릉 말단부에 형성된 소야정 마을 북편 구릉에 해당한다. 두 개의 소구릉 사이에 형성된 곡부에 한정되어 가마가 위치하고 있는데 북쪽에는 울창한 산림지대가 형성되고 남쪽에는 태화강 지류인 덕현천이 흐르고 있어 조업을 위한 기반조건이 양호한 곳이라 할 수 있다.

5. 평리 점말 웅기가마

지명총람 등에서도 독점이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으며,¹⁷⁾ 『연양읍지』에 '점말'은 점마을의 준말로써 조선시대 인회분청, 백토분청을 비롯한 사기와 웅기를

14)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7, 앞의 책.

15)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4, 앞의 책.

16) 울산문화재연구원, 앞의 책.

17) 한글학회, 앞의 책. ; 울산문화원, 앞의 책.

소성해 오던 가마가 있던 마을이라고 기록하고 있다.¹⁸⁾ 조사결과 유적은 점말마을 오룡저수지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일대에 민가가 몇 채 있는데 민가 뒤편 구릉 및 민가 주변 텃밭, 도로 주변 등지에서 용기편과 소토편 등이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저수지 인근 단애면에서도 회층과 용기편, 소토편 등이 다량 확인되어 저수지 인접한 지점까지 용기가마가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6. 척과리 용기가마

척과리 용기가마는 척과리 반용저수지를 지나 치술령 등산로 좌측으로 난 길을 따라 북서쪽 방향으로 약 700m 정도 올라가면 길의 좌측 구릉부에 있다. 구연 및 저부편 등의 용기와 잡물이 다량 부착된 파편들이 확인되었다. 용기가마 주변과 단애면 등지에서 검은 회층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어 이 일대에는 숫가마로 추정되는 가마도 다수 분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7. 구영리 점촌 용기가마

구영리 태화강과 동쪽의 구영구못 사이의 구릉 남쪽 사면 점촌마을 일대에 위치한다. 『울주지명사』와 『한국지명총람』에 구영리 ‘점촌’에 관해 언급하고 있으며, 『蔚山邑誌(광무3년, 1899)』에도 ‘旧營店’이 존재하였다고 한다.¹⁹⁾ 『법서읍지』에 의하면 ‘店村마을에서 시작된 용기생산의 역사는 高宗 31년(1894) 이전부터라고 전하며 1964년대만 해도 용기굴이 5개나 있었다고 한다. 20세기대에도 용기를 생산하였으며 당시 성행을 이루었던 용기굴의 위치에 관하여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²⁰⁾ 이들 용기굴이 위치하였다고 전하는 지점을 답사한 결과 다수의 용기편과 공뚜껑편, 벽체편과 도지미 등을 수습하였다. 이들 용기 중에는 20세기 뿐만 아니라 18세기~19세기에 해당하는 것도 다수 확인되어 과거 200~300년 전부터 용기조업이 행해졌던 것으로 추정되어 과거 ‘旧營店’이 위치하였던 곳으로 비정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8. 초천리 내기 용기가마①

『蔚山邑誌』기록에 ‘內基店’의 존재에 관한 기록이 있다.²¹⁾ 응촌면 초천리

¹⁸⁾ 안양읍지발간추진위원회, 앞의 책, 335~336쪽.

¹⁹⁾ 한글학회, 앞의 책. ; 울산문화원, 앞의 책. ; 『蔚山邑誌』店里. 旧營店 在凡西面距府 二十里.

²⁰⁾ 법서읍지편찬위원회, 앞의 책, 390~394, 519, 520, 576쪽.

²¹⁾ 『蔚山邑誌』店里. 內基店 在熊下面距府 三十里.

내기마을 남쪽 구릉 중턱에 위치하며 내기마을의 서쪽으로 회야강이 흐르고 동쪽으로 가파른 구릉이 있는데 구릉의 하단부 밭과 주변 일대에서 다양한 용기편과 자기편이 확인되고 있다. 소토와 벽체편이 확인되어 가마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나 수습되는 유물의 시기와 종류가 다양하여 여러 종류의 가마가 오랜기간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귀얄분청과 백자 및 17세기에서 19세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용기 등 다양한 유물이 확인되었다.

9. 초천리 내기 용기가마②

『蔚山邑誌』기록에 ‘內基店’의 존재에 관한 기록이 있다. 응촌면 초천리 내기마을 북서쪽 구릉 말단부에 있는 마을의 하천가에서 18세기~19세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용기편이 다량 확인되고 벽체와 소토편도 다수 확인되어 가마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내기 용기가마①과는 인접하여 동일 가마군으로도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자에서 다양한 시기의 유물이 확인되는 것에 비해 후자에서는 18세기~19세기로 한정되는 유물이 집중 분포하여 별도의 유적으로 구분하였다.

10. 동천리 용기가마

동천리 용기가마는 회야호 남쪽으로 난 도로에서 남쪽편 구릉 도솔암으로 가는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월천못을 지나 남동쪽에 위치하는 독정골²²⁾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일대는 구릉 사이에 골짜기가 계단식 논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계단식 논의 동쪽 일대에서 벽체편, 소토편과 함께 다수의 용기편이 산재되어 있다. 벽체편은 한쪽면에 두껍게 유약이 용융되어 유리질화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가마는 논으로 개간되면서 모두 파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응촌면 초천리에는 고종 31년(1894) 이래 ‘내기’라 하여온 마을이다. 안터, 안마을의 뜻을 가졌다. 이 마을에는 용기점이 있었다.(울산문화원, 앞의 책.)

『응촌면지』에는 초천리에 용기굴터가 팽복 후 세 군데 있었으나 지금은 터만 하나 남아있다고 전한다.(응촌면지편찬위원회, 앞의 책.)

²²⁾ 『정량면지』에 동천리 양천마을 독정골을 용기를 구운 절터라 하여 ‘독정골’이라 부른다고 언급하고 있다. 지형도에는 ‘독정골’이라 표기되어 있어 현재 지명에 따른다.(정량면지편찬위원회, 앞의 책, 50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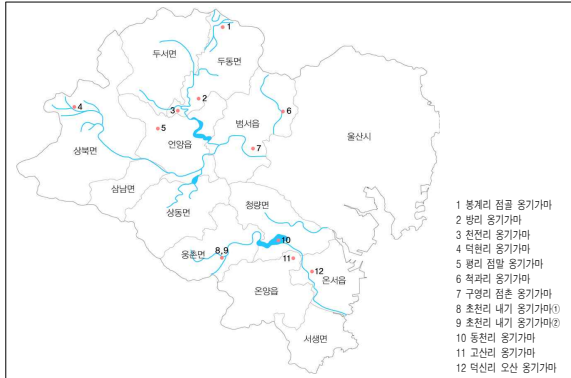
11. 고산리 웅기가마

고산리 웅기가마는 고산리 중고산 마을 접골에 있다. 안고산 마을에서 남서쪽 구릉을 끼고 500여m 정도 떨어진 구릉 말단부 휴경지 일대에 웅기편이 산재하고 구릉 단애면에는 회층 흔적과 다수의 웅기편이 확인된다.

12. 덕신리 오산 웅기가마

『온산읍지』에 덕신리 오산마을에 ‘규모가 큰 웅기막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²⁵⁾ 덕신리 회야강 동쪽 오산마을 오뭇들의 북서쪽 낮은 구릉부의 대나무 숲과 민가 사이에 웅기편과 가마 벽체편 등이 산재되어 있다. 대나무 숲 사이에 밭으로 조성된 부지와 단애면에서 다량의 웅기편과 소토 등이 확인된다.

삽도 1. 울주지역 웅기가마 분포도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울주군 내 웅기가마의 분포를 살펴보면(삽도 1. 참조) 울주군 북쪽 두동면, 인양읍, 범서읍 일대와 웅촌면, 청량면, 온양읍을 중심으로 하는 남쪽편 일대에 웅기가마가 집중되어 있는 편이고 온양읍 외고산 마을은 현재까지도 웅기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요업유적이 입지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첫째 접토가 풍부한 곳, 둘째 접토를

²⁵⁾ 온산읍지간행위원회, 앞의 책, 277쪽.

가공하고 기물을 성형하기 위한 물이 풍부한 곳, 셋째 가마를 구축하기 유리한 곳, 넷째 연료가 되는 시목이 풍부한 곳, 다섯째 생산물을 소비지로 이동하기 유리한 곳 등이 있다. 이러한 기본 입지요건을 바탕으로 울주군 내 웅기가마의 입지를 살펴보면 울주군 일대는 풍부한 접토를 구하기 용이하였으며²⁴⁾ 풍부한 산림과 태화강, 회야강 같은 큰 하천과 작은 수계가 발달해 있으므로 그를 기반으로 웅기 성형에 필요한 물을 얻기 용이하였다. 또한 수계를 통해 대형웅기를 소비지로 이동하기 용이한 이점 등을 활용하여 오랜기간 동안 웅기가마 조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²⁵⁾

울주군 내 조선전기 웅기가마의 수는 많지 않은 편이나 삼동면 하잠리 분청사기 가마에서도 조선전기 15세기~16세기대의 웅기편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²⁶⁾ 인근의 기장 장안읍 명례리 대명요지²⁷⁾에서도 조선전기 웅기가 확인되어 조선전

²⁴⁾ 정영화, 2002, '울산 웅기의 특징과 관광자원화', 『울주연구』창간호.

²⁵⁾ 울주지역에는 군의 서쪽에 태백산맥이 남북으로 종주하여 가지산(1,240m)·신불산(1,159m)·고현산(1,032m)·천황산(1,189m)·영축산(1,058.9m) 등이 위치하고 있고, 군의 중남지역에 문수산(599.8m)·대운산(742m)·거남산(170m) 등이 있다. 또한 태화강(31.5km)을 중심으로 대곡천(21.2km)·적파천(11.5km) 등의 하천과 회야강(34.9km)을 중심으로 남창천(12.0km)·화정천(2.0km) 등의 하천들이 분포하고 있다. 현재 이들 하천에는 대곡댐·대암댐·사연댐·회야댐 등이 만들어져, 댐들이 하천의 흐름을 차단하고 있어 이전처럼 하천을 중심으로 왕래를 쉽게 도모할 수 없지만, 울주지역의 웅기가마는 태화강과 회야강의 권역에 존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웅기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제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적파리, 초천리와 동천리유적을 제외한 유적은 인접 수계가 아주 인접하거나 또는 15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현황으로 보아 웅기가마의 입지는 울주군 내 수계 분포와 밀접하며 이를 통해 소비권역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유적별 소비지 추정에 관한 검토는 다음의 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이종봉, 2010, '울주지역 웅기의 생산과 의미', 『울주웅기사-학술조사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울주군·부산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김광욱, 2010, 앞의 책.

²⁶⁾ 이번 조사시 직접 유적을 답사하였으며, 하잠리유적 보고서에서 소개되지 않은 다수의 조선전기 웅기편을 확인하였다. 자기가마에서 출토되는 웅기류는 공방지 등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박홍국·김영민·차순철·조영상, 2000, 『울산 '인양 자기소' 지표조사 보고-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도요지』, 위덕대학교박물관·울산대학교박물관 ; 조영상, 2000, 『울주 하잠리 소재 조선 초기 도요지에 대한 일고찰』,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청양 광대리 백자생산 유적』, 2009, 광주대학교박물관.

²⁷⁾ 울산군의 자기소와 도기소는 『세종실록지리지(1454)』에는 군의 북쪽 계역달리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경상도속찬지리지(1469)』에는 군의 남쪽인 장안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15세기~16세기대의 웅기가마로 추정되는 '대명요지'는 15세기 중 후반경에는 '울산군'에 해당하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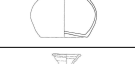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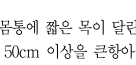
이종봉, 2008, '기장지역의 도자기 생산과 역사적 성격', 『기장 도자사 연구』, 기장군·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7~10쪽 ; 성현주, 2008, '기장지역 도자기의 제작기법과 도자사적 성격', 『기장 도자사 연구』, 기장군·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기부터 현대까지 옹기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Ⅲ. 수습된 유물

조선시대 옹기는 대체로 저장 또는 운반 용도의 기능을 가지며 시기에 따라 기종별 형태에 큰 변화는 없는 편이다. 옹기의 명칭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명칭들 대부분이 속칭으로 통용되고 있어 기종에 대한 명칭을 정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다종다양한 명칭과 용도로 이용되고 있어 그 명칭이나 용도를 하나로 통일시키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옹기가마에서 출토되는 옹기 대부분은 구연 또는 저부의 일부 파편만 확인되고 있어 전체 형태를 통한 기종 구분에는 한계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 수습된 유물은 대부분 파편이지만 구연부편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기종을 분류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표 2. 옹기의 기종분류 기준

기종	형태	형태
항아리 ²⁸⁾	동체가 구형에 가까우며, 목이 짧아져 구경이 동최대경 보다 작은 기형	
동이	넓은 구연부를 가지고 있으며, 동체부는 직립에 가깝거나 내만하는 기형	
단지	항아리와 같이 동체에 비해 목이 급격하게 좁아지나 높이가 약 30cm 보다 작은 기형	
병	좁은 경부와 나팔처럼 벌어지는 구연부를 가지고, 어깨에서 벌어져 동부에 최대경을 가지는 기형	
뚜베기	구경이 저경보다 넓고, 구연은 살짝 내만하며, 높이는 15cm 보다 작은 기형	
술	구경과 저경의 크기는 비슷하고, 동체 중앙 또는 중상단에 입술형 돌대 또는 대상의 돌출된 대가 돌아가고 있는 기형	
뚜껑	구경이 넓고, 높이가 낮으며 상면이 편평한 형태 또는 상면 중앙으로 갈수록 솟아오르고 중간에 손잡이가 있는 기형	

²⁸⁾ 고고학 용어집에 따르면 토기의 개념 안에서 '항아리'는 둥근 몸통에 짧은 목이 달린 토기를 칭하며, 그릇 크기에 따라 높이 30cm~50cm를 항아리, 높이 50cm 이상을 큰항아리, 높이 30cm 이하를 단지로 구분한다. 옹기에서는 50cm 이상의 것은 '동', 30cm 이상의 것은 '항아

울주군에서 확인된 12곳 옹기가마에서 수습된 유물을 각 유적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봉계리 점골 옹기가마



봉계리 점골유적 옹기구연부편

수습된 기종은 항아리, 동이, 단지, 술, 뚜껑 등이다. 태토는 적갈색, 유색은 갈색, 흑갈색, 암갈색 등을 띠는데 암갈색을 띠는 것이 다수이다. 항아리나 동이는 구연이 투박하고 대체로 두께가 두꺼운 편이다.

항아리의 구연은 밖으로 말아 접어 구연단은 편평하고, 역제형을 이루며 구연에서 바로 동체로 이어지는 것이 많다.²⁹⁾ 구연을 밖으로 길게 말아 접고 구연단이 살짝 뽀족하며 구연 외면은 둥글고 두텁게 말아 붙여 내만하는 형태³⁰⁾도 있다.

동이의 구연은 천전리 1유형(표 3. 참조)과 비슷하게 밖으로 말아 접어 역자

상을 이루나 구연단 상면은 편평하고 두꺼우며 투박하여 역제형에 가까운 형태가 많다. 동체 외면 상단에 파수가 부착된 것이 있으며 음각선이 시문된 것도 있다.

소형 단지는 경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고 구연이 얇게 외반해 나가는 것도 있다. 구연을 말아 접거나 점토를 덧대어 완만한 역삼각형을 이루는 형태도 있다.

술로 추정되는 기형도 있는데 구연은 살짝 내만하며 동체 중상단으로 추정되는 위치에 돌출된 돌대가 돌아가고 있다.

뚜껑으로 추정되는 편은 시유되지 않았으며 상면이 편평한 것과 중앙으로

리, 30cm 이하의 것은 '단지'로 칭하기로 한다.

『한국고고학개정용어집』, 1984, 한국고고미술연구소.

²⁹⁾ 구연 형태가 천전리 3유형의 것과 비슷하나 대체로 좀 더 투박하고 구연 모양이 역삼각형이 아닌 역제형을 이루고 있다.

³⁰⁾ 구연 형태가 천전리 4유형의 것과 비슷하나 역시 좀 더 투박한 느낌이며 구연이 더 크고 구연단에 평탄면이 없고 구연 외면이 두텁다.

갈수록 볼록해지는 형태가 있다. 소성시 기물을 포개는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으로 기물이 없어졌던 가운데와 가장자리는 서로 다른 색을 띠고 있다.

동체 외면에는 목질띠³⁴⁾를 넣고 그 위에 일정 간격 요철을 준 문양의 동체 부편도 확인된다. 대부분 구연단 유약을 한 번 닦아내었으며 내면에서 동심원문 또는 작은 원문의 내박자흔이 확인된다. 광명단³⁵⁾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광택이 있는 옹기편도 확인되며 기종이나 구연 형태, 두께, 문양 등의 특징으로 보아 부산 정관 옹기가마에서 출토된 것과 특징이 유사하여 점골 옹기의 제작시기도 19세기~20세기초로 추정된다.

2. 방리 옹기가마³⁶⁾

방리 옹기가마에서 출토되는 옹기의 기종은 항아리, 동이, 단지, 병, 뚜껑, 술 등이 있다. 태토는 굵은 석영과 사립 입자를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색조는 적갈색, 회갈색, 암회색 등을 띠고 있는데 단면 태토가 속심과 같이 다른 색조를 띠는 것이 다수이다. 유색은 갈색, 흑갈색, 녹갈색, 황갈색 등을 띤다. 항아리와 동이는 천전리 출토 옹기와 유사한 형태이고 동이는 귀때동이, 굽동이 등이 보인다. 뚜껑은 상면 중앙으로 갈수록 솟아오르고 중앙에 꼭지가 있는 형태이며, 밖에서 안으로 긴 타원형의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기벽 내면에는 동심원

³⁴⁾ 기면 정리후 외면에 점토를 덧붙여 돌출처럼 돌출되게 만든 장식 형태이다.
³⁵⁾ 송계선은 광명단(Pb₃O₄)옹기는 유독성 납광물을 혼합하여 만든 납유옹기로 1930년 일본인 도공이 영등포 토관공장에서 광명단유토관을 만든 것을 보고, 영등포 옹기점에서 이를 모방하여 광명단옹기를 만들게 된 것이라고 하며, 김중선은 광명단이 19세기 말부터 사용되었다고도 한다.
 광명단 옹기는 색이 붉고, 기면이 유리알처럼 반짝거리는데다가 매끄러워 종래의 옹기보다 좋아 보이고 가격은 낮아서 인기를 끌게 되었으나, 붉은색이 장독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여론이 생기자 광명단유에 유독성 산화망간(MnO)을 첨가하여 흑갈색 광택이 나게 함으로써 시장을 확대하기도 하였다. 종래의 갯물옹기보다 낮은 온도에서 소성을 함으로써 연료비와 인건비가 절감되는 장점이 있었으나 광명단의 납성분이 용해되면 인체에 해로운 뿐만 아니라, 납은 신에 약하기 때문에 발효 식품을 저장하게 되면 납 성분이 더욱 심하게 용출되어 발효식품 옹기로 부적당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또한 납성분은 소성과정에서 소지의 기공을 밀폐하여 숨쉬는 옹기 구실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저온소성이므로 두드러도 맑은 첫소리가 나지 않으며 강도가 약하여 깨어지기도 쉬웠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일제시대부터 광복 이후까지도 꾸준히 생산되다가 1974년 보건사회부의 식품법 제정 제35호로 옹기의 납 성분 허용치가 0.1PPM으로 규정됨에 따라 그 생산이 중지되었다.
 송계선, 앞의 책, 32~33쪽.; 김중선, 1997, '전라도 옹기의 문양', 『호남지방의 옹기문화』, 원광대학교박물관, 112쪽.
³⁶⁾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7, 앞의 책.

문의 박자흔이 남아있고 동체 외면에 음각선이 시문된 것도 있다.

3. 천전리 옹기가마³⁷⁾

천전리에서는 항아리와 동이, 단지, 술, 뚜껑, 병 등이 출토되었는데 동이 기종이 대다수이다. 태토는 굵은 사립이 다량 함유된 거친 입자인 것이 대부분이며 색조는 갈색, 황갈색, 연황갈색 등을 띤다. 유색은 갈색, 황갈색, 녹갈색, 흑갈색 등을 띠고 있는데 유약이 덜 녹거나 문쳐 흘러내리는 등 대부분 용융상태가 좋지 않은 편이다.



천전리유적 옹기구연부편

항아리와 동이의 구연 형태에서 천전리 옹기의 특징이 두드러지는데 구연부의 형태는 아래의 4가지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표 3. 천전리 옹기의 구연 형태 분류

유형	형태	도면
1유형	밖으로 말아 접어 역7자상을 이루며, 구연단 상면에 홈이 있는 형태	
2유형	밖으로 돌출되게 말아 접어 삼각형을 이룬 형태	
3유형	밖으로 말아 접어 역삼각형을 이룬 형태	
4유형	이중으로 길게 말아 접었으며 단부는 평단면을 가지면서 내반하는 형태	

천전리 출토 항아리는 경부가 없는 형태와 있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³⁷⁾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4, 앞의 책.

경부가 없는 것 중에서 구경이 30cm가 넘는 대형 기종과 점토를 밖으로 길게 말아 접으면서 내만하는 구연이 많이 나타난다. 대형 항아리에서 확인되는 이런 형태의 구연은 큰 항아리 운반시 구연부를 손으로 잡기 편하게 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동이는 가장 출토량이 많은 기종이며 굽동이 형태도 보인다. 동체가 내만하는 형태의 동이 중에는 내만하는 동체가 직선적이며 깊이가 깊지 않은 기형을 가진 것이 다수 보인다. 이들은 시유되지 않은 도침 검용 뚜껑들과 함께 동이 또는 항아리의 덮개 용도로도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 소수 기종으로 단지와 뚜벤키도 있다.

뚜껑은 상면이 구연에서 중앙으로 갈수록 불룩하게 솟아오르며 상면 중앙에 꼭지가 있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뚜껑 상면 가장자리에는 2cm~3cm 가량 테두리를 두르고 있는 띠 흔적이 강하게 남아있고 그 테두리 바깥으로는 유약흔이 보이며 상면 한쪽에는 직경 1cm 미만의 내외면을 관통하는 구멍이 있는 것이 있다. 이것은 뚜껑이 가마제입할 때 포개구이 받침 역할을 함으로써 상하 기물 간 열기 이동을 도와주는 공기구멍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병은 경부에서 약간 직선적으로 외반하며 구연단에 홈이 있는 형태가 있다.

술은 구경 23cm~33cm로 크기가 다양하고 동체가 양감있게 불룩하며 저부도 원저에 가까운 불룩한 형태가 있다. 굽이 있는 저부편이 있어 화로나 시루, 굽동이³⁵⁷ 등의 기종일 것으로 추정된다.

동이류에 부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파수류는 횡으로 연결된 대상 형태가 대다수이며 입술 모양의 돌대형 파수도 있다.³⁶⁷ 또한 직선형 또는 S자형으로 길게 돌출되어 단면이 원형 또는 말각방형인 파수가 있는데 이는 근대의 용기를

³⁵⁷일반 동이의 굽은 평굽(별도의 굽이 없이 저부로 이어지는 형태)으로 되어 있는데, 굽동이는 곧은 굽이 있는 형태이다. 입저림이 넓고, 굽저림은 1/2 정도이다. 양 어깨에는 곧은 손잡이가 있으며, 용량은 두 자리 전후이다. 용도는 채소를 씻거나 빨래를 행구거나 씨나락을 담거나 부엌 구경물통 등으로 쓰인다. 굽이 부착된 용기는 화독이나 시루 기종일 가능성도 있는데, 굽이 부착된 기종은 울주 천천리·덕현리·고산리, 사천 류천리, 부산 정관, 하동 고이리 용기가마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굽동이-

또한, 정병락은 종교행사 등에서 물이 가득 찬 물박 안에서 바가지를 얻어놓고 두드려며 노래하고 춤추며 노는 풍속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때 사용된 물박이 '굽동'과 유사한 형태이다. 이 물박에는 물박채를 보관할 수 있도록 굽에 두 개의 구멍이 뚫려 있기도 하다.

『호남지방의 용기문화』, 1997, 원광대학교박물관 ; 송재선, 『우리나라 용기』, 2004, 동문선, 246~247쪽 ; 정병락, 『용기와의 대화』, 1997, 용기민속박물관, 86~87쪽.

³⁶⁷돌대형 파수는 우천리유적에서 출토예가 보이기는 하나 조선전기에는 출토예가 드물고, 조선 중기 이후로 술 등에 많이 부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살펴보았을 때 약탕기 등의 기종에 부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부착된 상태로 출토된 예가 없어 명확한 기종을 단정짓기는 어렵다.³⁵⁷ 가로로 부착되는 파수는 넓게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많으나 천천리에서는 대상 파수를 상하에서 말아 접어 파수폭이 좁고 두꺼운 것이 보인다.³⁶⁷

천천리 용기의 내면 도개흔의 모양은 동심원문의 것과 작은 원문이 밀집된 것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4. 덕현리 용기가마

덕현리유적은 용기가마 1기와 다수의 공방지, 그리고 석축, 수혈, 암거 등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는데 대부분의 유구에서 다량의 용기유물이 출토되고 있어 공방지 외 기타 유구들도 용기가마와 관련된 유구인 것으로 추정된다.

기종은 항아리, 동이(귀매동이), 단지, 병, 술, 시루, 굽동이 등이 있고 태토 및 유색은 다양한 편이다. 내면에는 동심원문의 도개흔이 관찰되고 외면에서 사선방향의 수레흔이 확인되는 것도 있다. 받침흔적이 남아있는 것에서 조개껍질, 모래, 잔자갈받침흔 등이 확인되었다. 항아리는 경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다양하다. 구연부의 형태는 T자형, 역7자형 또는 완만한 역삼각형을 이루며 구연단이 약간 솟거나 움푹 들어간 형태가 있다. 항아리 보다 작은 단지에 해당하는 기종이 많은 편이다. 뚜껑은 시유되지 않았으며 지름이 15cm~23cm 내외이고 상면이 편평하고 중앙에 꼭지가 부착된 것이 약 8점 정도 출토되었는데 이는 청도 순지리, 순천 천천리, 사천 우천리, 하동 고이리유적에서도 비슷한 형태가 출토된 바 있어 조선전기 또는 중기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굽동으로 추정되는 굽이 부착된 용기저부편도 약 5점 정도 보고되었다. 항아리 외면에 음각선 또는 수화문으로 반원문이 시문된 것이 있고 근개띠³⁶⁹ 위에 요철이 있는 것도 확인된다. 용기의 기종 등의 특징으로 보아 사천 우천리, 하동 고이리 등과 유사하여 유물의 제작시기는 17세기~18세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³⁵⁷윤숙자, 2002, 『전통부엌과 우리살림』, 떡·부엌살림박물관, 126~127쪽 ; 『자연을 담은 그릇, 용기』, 2006, 재단법인세계도자기연구소, 38쪽.

³⁶⁷가로로 부착된 대상 파수를 상하에서 외면 쪽으로 말아 접은 예는 칠곡 가천동, 울산 방리유적에서도 확인된다.

³⁶⁹기반 정리후 '근개'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외면에 돌대처럼 돌출되게 만든 장식 형태이다. 근개 띠는 목질띠와 함께 매끈한 용기표면을 울퉁불퉁하게 하여 벌레의 접근과 부정을 막아 저장 음식의 변질을 막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다.

김종선, 1997, '전라도 용기의 문양', 『호남지방의 용기문화』, 원광대학교박물관, 112쪽.

5. 평리 점말 옹기가마

점말유적에서 수습된 기종은 항아리, 동이, 단지, 뚜껑 등이 있으며 태토는 적갈색, 유색은 갈색, 흑갈색, 암갈색 등을 띤다. 소성시 기물을 받쳤던 도지미로 추정되는 껌돌⁴⁰⁾에 옹기 저부편이 부착된 채 수습된 것이 있고, 저부편끼리 서로 부착된 파편도 확인된다. 벽체편이 다수 확인되었는데 일부는 유리질화 되어 있다.



평리 점말유적 옹기구연부편

파편은 대부분 구연과 동체편으로 기형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으나, 동체가 양감있는 항아리로 추정되는 것은 소수이며 동체가 직선적이거나 내만하는 동이로 추정되는 것이 다수이다.



평리 점말유적 옹기뚜껑 및 저부, 파수편

항아리와 동이의 구연 형태는 천전리유적에서 나타나는 옹기 구연의 4가지 유형이 모두 확인되고, (표 3. 참조) 상면이 중앙으로 갈수록 볼록해지는 형태의 뚜껑도 확인된다. 천전리 4유형의 길게 말아붙은 옹기 구연부에 음각파곡선문이 시문된 파편도 확인된다. 그리고 봉계리 점골 옹기가마에서 보이는 것처럼 천전리 1유형과 3유형이 좀 더 투박해서 구연 단면형태가 역제형을 띠는 것이 확인되고 있어 이들 유물은 시기가 좀 더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동체 내면에서는 동심원문 또는 작은 원문의 내박자흔이 확인되며 동체 외면에 입술형 파수가 부착된 편과 목질띠 위에 요철문을 넣은 동체부편도 확인

⁴⁰⁾ '고인돌'은 경사진 가마 바닥에 옹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받치는 흙덩이이다. 고이는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축약해서 껌돌, 고염, 껌돌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89쪽.)

되었다.

기종이나 구연 형태 등의 특징으로 보아 점말 옹기의 제작시기는 18세기~19세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6. 척과리 옹기가마



척과리유적 옹기편

수습된 옹기의 기종은 항아리, 동이 등이며 태토는 회갈색 또는 적갈색, 유색은 대체로 갈색 또는 암갈색이다.

구연의 형태는 점토를 밖으로 말아 붙여 역삼각형을 이루는 것이 대부분이고 저부편에서는 성형시 저부와 동체를 서로 접합하여 성형한 흔적이 확인된다. 구연단에 규석받침흔이 확인되는 것도 있고 내면에

서는 동심원문의 도개흔이 확인된다. 벽체편이 다수 확인되고 저부에 잡물이 다량 부착된 소성불량품도 확인된다.

척과리 옹기는 천전리나 평리 점말유적에서 출토된 옹기와 유사하여 조선 후기 18세기~19세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7. 구영리 점촌 옹기가마

수습된 옹기의 태토는 회갈색 또는 적갈색을 띠며, 유색은 갈색 또는 암갈색, 흑갈색 등을 띤다. 기종은 항아리, 동이, 단지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파편은 구연 일부만 잔존하여 기형을 복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항아리와 동이의 구연 형태는 천전리 1~4유형이 모두 확인된다. (표 3. 참조) 그리고 봉계리 점골유적과 같이 천전리 1, 3유형의 형태가 좀 더 두껍고 투박해져서 역제형을 띠는 구연 형태가 확인된다. 천전리 4유형의 밖으로 길게 말아붙은 형태이나 내측에도 점토를 덧대어 크고 두꺼운 구연부편이 있는데 구연 외면에는 1.7cm 정도 길이의 사선을 그어 문양효과를 내었다. 이들 중에 몇 점은 유약이 광택을 띠는 것도 확인되는데 이는 광명단 유약이 사용된 것으로 19세기 말 또는 20세기 초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단지류의 구연 형태는 단부가 대체로 완만하게 등그스름하거나 편평한 형태이며 역삼각형에 가깝거나 또는 많이 돌출되지 않은 'T'자형에 가까운 형태도 있다. 단지류 중에서도 흑갈색의 광택이 있는 유약이 시유된 것도 있다.

저부 아래에 굽이 부착된 굽동이 파편이 확인되고, 상면이 편평하고 투박한 굽이 부착된 동이하래도 있다.///



구영리 점촌유적 용기편

뚜껑류는 시유되지 않았으며 상면 중앙으로 갈수록 불룩해지는 형태의 것이 있는데 상면 가장자리에 소성시 다른 기물의 구연이 닿았던 흔적이 남아있고 색조도 가장자리와 중앙부는 서로 다른 색을 띠고 있다. 다른 기물이 닿았던 부분에서 굽은 모래를 엮었던 흔적이 남아있다. 상면 중앙이 불룩해지는 뚜껑은 중앙에 손잡이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상면 중앙이 잔존하는 편이 없어 손잡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두께가 더 두꺼우며(1cm 이상) 상면은 편평하고 길이 1cm 정도의 내외면을 관통하는 구멍이 뚫렸으며 가장자리는 도구를 이용하여 잘라낸 시유되지 않은 기물이 있다. 이는 뚜껑 용도보다는 근대의 공뚜껑 이용과 같은 기능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근대의 것은 가장자리가 터지는 큰 구멍이 3개씩 뚫려 있는 형태이나 편의 크기가 작아 가장자리 구멍은 확인할 수 없으며 상면 중간에 작은 구멍만이 확인되고 있다. 가장자리에 큰 구멍이 뚫려 있으면서 상면이 중앙으로 갈수록 조금 불룩해지는 형태의 공뚜껑도 1점 확인되었다. 내외면은 거칠게

///'동이하래'는 물통이를 받쳐 두는 것으로 동이 밑바닥에 물이 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 또는 옆구리에 한 두 개의 구멍이 뚫려 있기도 하다. 인천 영종도 옹기가마에서 밑과 옆이 뚫린 '동이하래'가 여러점 출토되었으며, 부산 정관 유적에서도 유사한 기종이 출토되었으나 길이가 짧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윤숙자, 앞의 책, 148쪽; 『인천 영종도유적』, 2009, 고려문화재연구원; 『강서죽도성지 附:부산 정관 옹기가마터』, 2006, 동아대학교박물관, 83~84쪽.



-동이하래-



구영리 점촌유적 굽동이편 및 벽체편

정면이었으며 사립입자가 많이 붙어있다. 저부편의 깨어진 단면에서 저부와 동체부는 따로 제작하여 부착한 흔적이 확인된다. 내외면에는 회전흔이 남아있기도 하고 동심원문 또는 작은 원문의 내박자흔도 확인되고 있다. 구연단에는 대부분 유약을 닦아내었으며, 구연 가장자리에 소성시 뚜껑 또는 공뚜껑과 붙었다 떨어진 흔적이 남아 있는 것도 있다. 벽체편 및 소토덩어리도 다수 확인되었으며 일부는 유리질화되어 있다.

점촌 옹기가마에서는 천전리 출토유물과 유사한 18세기~19세기에 해당하는 형태와 부산 정관 출토유물과 유사한 19세기~20세기에 해당하는 형태와 기종들이 확인되고 있어 18세기 후반에서 20세기에 걸쳐 오랫동안 조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8. 초천리 내기 옹기가마①

내기유적①에서 수습되는 유물은 대부분 5cm 내외의 소편이 대부분으로 다수의 파편이 확인되고 있으나 상태는 좋지 않은 편이다. 주변이 오랫동안 밟으로 경작되는 동안 대부분 파손된 것으로 생각된다. 수습되는 옹기의 유색은 갈색, 녹갈색, 흑갈색 등을 띠고 있다. 다수의 소토 및 벽체편이 확인되어 가마가 존재하였던 것은 확실하나 유물의 시기 및 종류는 다양한 편이다. 옹기편 외에 분청, 백자 등의 자기편도 수습되었으며, 소편이나 귀얄문이 시문된 분청자기편도 확인되어 유적의 시기는 16세기까지 올려볼 수 있으나, 옹기편은 구연 형태 등으로 보아 18세기~19세기에 해당하는 유물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기벽이 얇은 편이며 구연 형태가 역7자형, T자형이 소수 확인되어 이들 유물은 17세기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지만 T자 형태 구연이 좀 더 두꺼워져 역삼각형을 가까워지고 구연단 상면에 깊은 홈이 파인 형태가 사천 우천리유적(16세기~17세기)보다는 울주 덕현리유적(17세기~18세기)에서 보다 많이 확인되고 있어 이들 유물은 대체로 18세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8세기~19세기에 해당하는 항아리나 동이의 구연은 밖으로 말아 접어 역7자상을 이루며 구연단 상면에 홈이 있는 형태, 이중으로 길게 말아 접었으며 단부는 평탄면을 가지면서 내만하는 형태, 밖으로 돌출되게 말아 접어 삼각형을 이룬 형태 등이 확인된다. 상면 가운데가 불룩해지

면서 가장자리는 다른 색조를 띠며 상면에 밖에서 안으로 구멍이 뚫린 뚜껑편도 다수 수습되었다. 동체 외면에 음각선이나 수화문 또는 근개띠가 부착된 형태가 확인되기도 하며, 동체 내면 도개흔은 동심원문 또는 작은 원문이 확인된다. 따라서 확인되는 옹기유물은 17세기~19세기에 이르는 다양한 특징들이 확인되어 가마의 조업시기가 길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초천리 내기유적① 옹기구연부편

9. 초천리 내기 옹기가마②

내기유적① 일대에서 다양한 시기의 다양한 유물이 확인된 것과 달리 내기유적②이 위치하는 구릉 말단부의 북쪽, 민가와 인접하고 있는 하천가에서 18세기~19세기에 국한되는 옹기편 및 벽체, 소토편이 다량 확인되어 내기유적①과 별도의 가마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내기 옹기가마①과는 위치상으로 인접하고 있어 동일 가마군일 수도 있으나, 내기 옹기가마②에서는 18~19세기에 옹기만을 조업했던 가마가 별도로 입지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출토되는 유물은 항아리, 동이, 단지 등이 있으며 유색은 갈색, 녹갈색, 암갈색 등을 띤다. 항아리와 동이의 구연 형태는 천전리에서 보이는 1, 3, 4유형(표 3. 참조) 등이 확인되며 항아리는 경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구연 아래에 귀떼가 부착된 귀떼둥이도 확인된다. 저부편 동체 외면에 사선방향의 수레질 타날흔이 남아있는 것이 있다. 다량의 벽체와 소토편이 수습되었는데 일부는 유리질화 되어 있다.



초천리 내기유적② 옹기구연부편

10. 동천리 옹기가마



동천리유적 옹기구연부편

수습된 옹기의 기종은 항아리, 동이, 단지 등이며 수습 파편이 소량이고 소편들이라 기종이 다양하지 않은 편이다. 태토는 회갈색 또는 적갈색을 띠고 있으며 유색은 갈색, 녹갈색, 암녹갈색을 띠고 있다. 내면에서는 동심원문의 박자흔이 관찰된다. 구연 형태는 T자형, 역7자형 등이 있으며 구연단에서 조개껍질 또는 굵은 사립 받침흔적이 확인되고 저부편에서 다른 기물과 포개어졌던 흔적이 있어 소성시 가마 안에서 여러 기물을 서로 포개구이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울주 덕현리⁴²⁾ 사천 우천리⁴³⁾ 출토유물과 유사한 형태로 16세기 후반~17세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1. 고산리 옹기가마

수습된 옹기의 기종은 항아리, 동이, 단지, 병, 뚜껑 등이며 태토는 갈색, 회갈색, 황갈색을 띠고 유색은 갈색, 암갈색, 흑갈색 등을 띤다. 옹기의 기벽은 두꺼운 편이다.



고산리유적 옹기구연부편

항아리와 동이의 구연 형태는 ①밖으로 말아접어 역7자상을 이루며 구연단 상면에 홈이 있는 형태 ②밖으로 돌출되게 말아 접어 삼각형을 이룬 형태

42) 울산문화재연구원, 앞의 책.

43) 배보너, 2005, 앞의 논문.

③점토를 밖으로 말아 접어 역삼각형을 이룬 형태 ④점토를 길게 말아 접었으며 단부는 평탄면을 가지면서 내만하는 형태 등이 있는데 이는 조선후기 옹기가마에서 주로 보이는 형태로 천전리 옹기가마 출토유물과 형태가 유사하다.(표 3. 1~4 유형 참조) 천전리유적과 마찬가지로 경부가 없는 항아리 기종 중에 구연 형태가 천전리 4유형 보다 점토를 밖으로 길게 말아 접으면서 내만도가 큰 형태가 있다. 이런 형태의 항아리 구연은 다른 기형보다 대형으로 운반시 구연부를 손으로 잡아 움직이기 편하게 하는 용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병과 단지 기종은 소수 확인되고 뚜껑은 다량 확인되었다. 뚜껑이 출토량이 많은 이유는 뚜껑이 포개구이 소성시 공뚜껑 역할 즉, 소성도구 기능도 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뚜껑은 상면 중앙으로 갈수록 불룩해지며 중앙에는 돌출된 꼭지가 있는 형태이다. 상면 외측 가장자리는 포개구이 소성으로 상면 중앙과 다른 색조를 띠며 상면에는 밖에서



고산리유적 뚜껑편

안으로 뚫은 구멍이 확인된다. 병의 잔존하는 경부 중앙에는 음각선이 돌아가고 음각선 아래에는 음각의 물결문이 1조 확인되고 있다. 천전리 출토유물과 유사한 형태의 각부편이 1점 확인되는데 이는 굽동이 등의 기종으로 추정된다.

동체부편에서 외면에 음각선이 시문된 것이 많으며 내면에는 강하게 타날된 동심원문 도개흔과 도개흔 시문 후 음각선이 시문된 것도 확인된다. 천전리 출토 옹기에서는 내면 도개흔이 동심원문의 것과 작은 원문의 것이 혼재하고 있으나 고산리에서 수습된 옹기 중 내면 도개흔이 남아있는 것은 모두 강하게 타날된 동심원문만이 확인되는 점이 특이하다.

대체적인 고산리유적 옹기의 특징은 18세기~19세기에 조업이 이루어졌던 천전리 옹기와 유사하여 천전리와 동일시기에 옹기를 생산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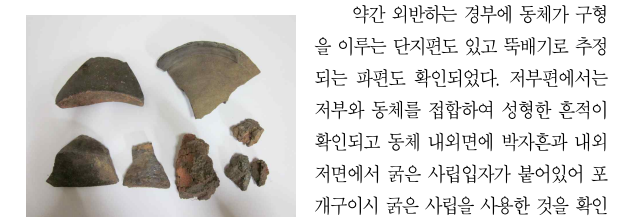
12. 덕신리 오산 옹기가마

오산유적에서 수습된 옹기의 기종 또한 항아리, 동이, 단지 등이 있으며 유색은 갈색, 흑갈색, 암갈색 등을 띤다. 옹기 구연 형태는 밖으로 돌출되게 말아 접어 역삼각형을 이룬 형태와, 밖으로 말아접어 역7자상을 이루며 구연단 상면에 흠이



덕신리 오산유적 옹기구연부편

있거나 또는 구연단이 특박한 사다리꼴 형태인 것이 확인된다. 구연을 역7자상으로 외반시켰으나 얇고 길게 외반되고 구연단 외측에는 흠이 돌아가며 기외면에는 음각선으로 물결문을 시문한 것도 있다.



덕신리 오산유적 옹기저부 및 벽체편

구연단이 사다리꼴인 옹기편은 흑갈색 유약이 두텁게 시유되어 있으며 동체 외면 상단에 3조의 음각선이 있고 횡방향으로 부착된 손잡이가 있는데 외측으로 말아접어 위를 향하고 있는 모양이다. 내면에는 작은 원문의 내박자흔이 있으며 편평한 구연단은 유약을 닦아내었다.

약간 외반하는 경부에 동체가 구형을 이루는 단지편도 있고 똑배기로 추정되는 파편도 확인되었다. 저부편에서는 저부와 동체를 접합하여 성형한 흔적이 확인되고 동체 내외면에 박자흔과 내외저면에서 굵은 사립입자가 붙어있어 포개구이시 굵은 사립을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횡방향 파수가 부착된 또 다른 동체부편과 동이 동체부편에서 내면에 유약을 지운 물결문 수화문이 확인되는 것도 있다.

상면 중앙이 불룩해지는 형태의 뚜껑편에 소성시 포개구이 했던 옹기 구연부편이 부착된 상태로 수습되었는데, 뚜껑 내외면에는 성형시 타날한 흔적이 있고 소성시 굵은 모래를 받쳐 포개구이 했던 흔적도 확인된다. 동이아래 기종의 각부로 추정되는 파편도 있으며 벽체편도 다량 확인되었다.

옹기의 구연 형태나 두께 등의 특징으로 보아 덕신리 옹기의 제작시기도 18세기~19세기로 추정할 수 있다.

IV. 유물의 특징과 제작시기

앞서 울주군 내에서 확인된 옹기가마에서 수습된 유물현황을 유적별로 살펴해보았다. 각 유적별 수습유물을 기준에 영남지방에서 확인된 조선시대 옹기와외

비교검토를 통해 제작시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유물의 특징

조선전기 용기는 대체로 녹갈색 계통의 유색을 띠고 내면에서 동심원문의 내박자흔이 확인되고 구연단 또는 내외저면에서 조개껍질 받침흔이 확인된다.⁴⁴⁾ 동체 외면에서 문양이 확인되는 것은 거의 없는 편이고 뚜껑류는 사유되지 않았으며 형태는 상면이 편평하고 깊지 않으며 구연은 외반하는 형태 [뚜껑 1유형] 와 상면이 편평하고 지름이 크지 않으며 상면 중앙에 꼭지가 부착된 형태 [뚜껑 2유형] 가 있다.(표 7. 참조)

조선시대 용기가 근대의 용기와 유사한 유색과 형태를 띠는 것은 18세기 이후가 되면서부터이다. 18세기 이후의 울산 천전리, 방리와 사천 유천리, 부산 정관유적 출토 용기는 유색이 근대의 용기와 유사한 갈색, 흑갈색, 암갈색 등을 띠며 기벽의 두께도 두터워진다. 음각선을 비롯하여 근개띠 또는 목질띠에 요철이 더해진 문양이나 수화문 등의 문양도 이 시기 이후로 더욱 빈번하게 확인된다. 뚜껑의 형태는 조선전기와 다른 형태로 가장자리부터 완만하게 솟아올라 상면 중앙이 볼록하고 돌출된 꼭지가 있는 형태 [뚜껑 3유형] 와 가장자리는 편평하나 상면 중앙은 볼록하고 중앙에 돌출된 꼭지가 있는 형태 [뚜껑 4유형], 상면이 편평하거나 아래로 볼록하면서 중앙에 손잡이가 없는 형태 [뚜껑 5유형] 가 주로 확인되고 있다.(표 7. 참조) 기종에 있어서는 조선 중후기가 되면서 새로운 기종이 추가되거나 새로운 시문방법이 나타나기도 한다. 17세기 이전의 용기에서는 내면 박자흔이 동심원문만이 확인되나 18세기 이후부터는 동심원문을 비롯한 작은 원문, 그리고 칠곡 봉계리유적에서는 동심원문에 다른 문양이 가해진 형태의 박자흔⁴⁵⁾을 비롯한 역삼각문, 선문도 확인되나 봉계리유적에서만 나타나며 혼한

44) 영남지방에 해당하는 청도 순지리, 하동 백련리, 사천 우천리, 하동 고이리유적에서는 포개구이 받침흔으로 구연단 또는 내외저면 등에서 조개껍질 받침흔만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의 호남지방에 해당하는 나주 우산리, 강진 율하리, 순천 건천유적 등에서는 조개껍질이나 굵은 사립, 규석 등 다양한 받침흔이 확인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소개된 용기가마의 자료만으로는 조개껍질 받침을 사용한 것이 17세기 이전 시기에 영남지방 용기의 특징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당장 단정짓기 보다는 앞으로 좀 더 많은 자료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5) 칠곡 봉계리 용기 내박자 문양 가운데 동심원문에 다른 문양이 가해진 형태 중에는 동심원상의 내박자 가운데에 양각 또는 음각으로 화문이 새겨진 형태 또는 차륜문이 새겨진 형태가 있다. 이 중에서 차륜문이라고 칭하는 내박자문은 봉계리 용기를 제작하는 집단이 천주교 집단이었다는 점(칠곡 봉계리 용기의 제작집단은 용기의 제작시기가 18~19세기대로 추정되며, 인접한 용기묘에서 청동십자가가 출토되었으며, 19세기대가 우리나라 천주교도들이 대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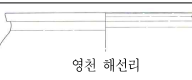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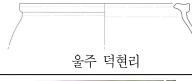
형태는 아니다.

조선시대 전반을 통해 시기에 따라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양상을 가지는 구연부의 형태와 뚜껑의 형태를 통해 세부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구연부의 형태

조선전·중기의 항아리와 동이의 구연 형태는 밖으로 말아붙은 T자형과 역 T자형이 대부분이다. 나주 우산리와 청도 순지리 등 15세기~16세기 용기의 항아리와 동이 구연 형태도 T자형과 역 T자형을 하고 있으며 사천 우천리, 울주 덕현리 등 조선중기 시기 항아리와 동이의 구연 형태도 기본적으로는 유사한 모양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 표 4의 도면과 같이 조선전기 용기의 구연은 T자형과 역 T자형이 두드러지며 중기 용기의 구연은 기본 형태는 유지하나 약간 뚱뚱해지며 기벽이 약간 더 두터워지는 형태이다.

표 4. 조선전·중기 용기의 구연 형태

기종	형태	조선전기(15세기~16세기)	조선중기(17세기~18세기)
항아리 및 동이	T자형	 청도 순지리	 영진 해선리
	역 T자형	 나주 우산리	 울주 덕현리

박해를 받던 시기라는 점에서 천주교도들이 무리를 이루어 용기집을 운영하며 살았던 교우촌 집단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으로 보아 동심원문 가운데 새겨진 문양은 수레바퀴문이라기 보다는 십자문의 형태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으로 판단된다.






<칠곡 봉계리 용기의 도개흔 유형>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앞의 책. ; 김혜숙, 2006, 『19세기 '용기 교우촌'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단지 기종에서는 말이접은 구연이 몽툰하게 등글면서 외반하거나 각이 완만한 역삼각형으로 상면에 살짝 홈이 있는 형태 등 다양하다. 조선전기 단지류의 구연부 형태는 다음과 같다.



표 5. 조선전 · 중기 용기단지의 구연 형태

단지1	단지2	단지3
		
사천 우천리	사천 우천리	사천 우천리

조선후기의 항아리와 동이의 구연 형태는 표 3.에서 보이는 4가지 형태가 대표적이다. 단지류의 구연은 전 · 중기 시기의 것과 유사한 형태이다.

조선후기에서 근대에 가까워지는 시기가 되면 용기 구연 형태가 좀 더 투박해지는데, 19세기 후반대로 추정되는 용기 구연부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표 6. 19세기 후반대의 용기 구연 형태

유형	형태	도면
1유형	1천전리 1유형의 역삼각상 구연이 투텁고 투박해서 역제형을 이루는 형태	 철곡 봉계리
2유형	1천전리 3유형의 역삼각형 구연이 투텁고 투박해서 역제형을 이루는 형태	 철곡 봉계리

2) 뚜껑의 형태

뚜껑은 모두 시유되지 않았으며⁴⁶⁾ 형태는 표 7.과 같이 15세기~17세기에

⁴⁶⁾ 뚜껑류가 시유되지 않은 이유는 소성후에는 뚜껑의 용도로 이용되나 소성시에는 기물과 기물 사이에 끼워넣어 포개구이의 도지미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붙지 않아야 하므로 시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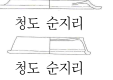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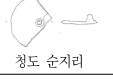




해당하는 유적에서는 상면이 편평하고 깊지 않으며 구연은 외반하는 형태 [뚜껑 1유형] 와 상면이 편평하고 지름이 크지 않으며 상면 중앙에 꼭지가 부착된 형태 [뚜껑 2유형] 가 확인되고 18세기~20세기 유적에서는 가장자리부터 완만하게 솟아올라 상면 중앙이 볼록하고 돌출된 꼭지가 있는 형태 [뚜껑 3유형], 가장자리는 편평하나 상면 중앙은 볼록하고 중앙에 돌출된 꼭지가 있는 형태 [뚜껑 4유형] 가 주로 확인된다. 18세기~19세기의 상면이 볼록한 뚜껑류는 대부분 상면 한쪽에 외면에서 내면 방향으로 등글거나 길쭉한 길이 1cm 내외의 구멍이 1~3개 정도 뚫려 있는 것이 확인된다.⁴⁷⁾ 20세기 이후가 되면 더 이상 동일 기종을 뚜껑과 공뚜껑의 겸용으로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상면이 편평하고 두꺼우며 가장자리에 구멍이 뚫린 형태의 ‘공뚜껑’을 소성시 포개구이 사이에 끼워 넣어 서로 붙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였으며 이는 뚜껑으로 활용하지 않고 포개구이 도구로 1회용으로만 사용하였다. 이 시기 이후부터는 새로운 형태의 기종이 뚜껑으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⁴⁸⁾

⁴⁷⁾ 대부분의 출토유물은 파편이라 대부분 1개 정도의 구멍만이 남아있으나 철곡 봉계리유적 5호 용기묘 출토 완형 공뚜껑을 살펴보면 1cm 내외의 구멍이 3~4개 정도 뚫려있는 것이 확인된다. 철곡 봉계리 용기가라는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용기묘군 출토 용기와 유사한 형태들이 확인되어 용기묘 조성시기와 가마 조업시기는 동시대인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봉계리유적은 천주교도들이 운영하였던 용기촌이었으며 그 천주교인의 묘로 추정되므로 조성시기 또한 우리나라 천주교 박해시기인 19세기 이후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뚜껑 상면에 구멍수가 3개 이상인 것이 19세기 이후의 특징인지 아니면 다른 유적 출토 뚜껑이 잔존 파편의 크기가 작아 2개 이상 확인이 안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앞의 책.

⁴⁸⁾ 20세기 이후의 용기는 고고학조사를 통한 유물이 아닌 민속유물 또는 현대의 용기점을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근대사건 등을 살펴보면 상면이 볼록하게 솟아오르며 중앙에 보주형 손잡이 등이 부착된 것이 뚜껑으로 이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현대 용기를 살펴보았을 때 자배기, 버치, 널벅지 등의 기종이 용기의 덮개로 이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각각 구멍이 넓고 높이가 낮거나 또는 높은 동이 형태의 기종으로 이를 뒤집어 용기의 덮개로 이용하였다. 용기는 같은 형태의 용기라도 크기 또는 용도에 따라서 기명이 다르게 불리고 있다. 이는 용기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생산되었을 뿐 아니라 판매망이 지방단위로 형성되어 그 기명이 표준어로 명명되지 못하고 지방사투리로 남은 것이 많아 용기의 기명이 복잡하고도 많은 것이다. 광주 삼소동 신흥마을의 용기는 뚜껑의 종류가 바네기, 판재기, 전다리, 송뚜병, 지승뚜병, 춘뚜개 등이 있으며, 뚜껑의 이름이 그 규격에 따라 대바네기, 중바네기, 셋째바네기, 전다리, 판재기, 전속, 일자바네기, 오사구판재기, 오원짜리, 큰삼원짜리, 작은 삼원짜리 등이 있다고 하나 이들의 현지에서 실물을 조사하지 않고서는 그 형태와 특징을 알기 어려우며 다른 지방에서는 같은 명칭으로 불리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앞에 언급한 자배기, 버치, 널벅지도 구체적인 형태의 기준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송재선, 앞의 책 ; 『광주 삼소동 신흥마을 용기』, 1992, 광주직할시립민속박물관 ; 『사건으로 보는 조선시대-생활과 풍속』, 1987, 서문당.

표 7. 옹기뚜껑 유형분류

유형	형태	참고도면	시기
1유형	상면이 편평하고 깊지 않으며 구연은 외반하는 형태	 청도 순지리 청도 순지리	15세기 ~17세기
2유형	상면이 편평하고 지름이 크지 않으며, 상면 중앙에 꼭지가 부착된 형태	 청도 순지리	
3유형	가장자리부터 완만하게 솟아올라 상면 중앙이 볼록하고 돌출된 꼭지가 있는 형태	 울주 천천리	18세기 ~20세기초
4유형	가장자리는 편평하나 상면 중앙은 볼록하고 중앙에 돌출된 꼭지가 있는 형태	 칠곡 가천동	
5유형	상면이 편평하거나 아래로 볼록하면서 중앙에 손잡이가 없는 형태 ⁴⁹⁾	 칠곡 봉계리	
6유형 (공뚜껑)	상면이 편평하고 뚜껑머리 가장자리에 구멍이 뚫린 형태 ⁵⁰⁾	 『옹기를 만드는 사람들』	20세기 이후

⁴⁹⁾ 칠곡 봉계리 출토 5유형 옹기뚜껑은 옹기가마 출토유물이 아닌 분묘 내부에서 옹관 내용으로 사용된 유물이지만 유사한 시기로 추정되는 정관 옹기가마 출토 5유형 옹기뚜껑보다 유물상태가 양호하여 유형분류 참고도면으로 제시하였다. 봉계리 옹기묘군은 인근 옹기가마와 10m 이내 거리에 인접하고 있고, 출토되는 옹관은 옹기가마 출토 옹기와 유사한 특징을 하고 있어 가마소성품을 옹기묘에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기존의 선사시대 ‘옹관묘’와 구분되게 하기 위하여 조선시대 옹기로 관을 조성한 묘를 ‘옹기묘’로 칭하기로 한다.)

⁵⁰⁾ 가장자리에 뚫은 구멍은 형태는 반원, 반타원형, 길쭉한 타원형 등 정해진 규격이 있는 것이 아니며 중앙에 동그란 구멍이 뚫려있는 것도 있다. 옹기의 크기에 따라 공뚜껑의 크기도 다른 것을 사용하였다.

2. 제작시기

동천리 옹기가마는 울주군 내에서 확인된 가장 이른시기에 해당하는 유적이다. 기종이 단순하고 내면 박자흔으로 동심원문만이 확인되며 조개껍질 받침흔이 주로 이용되고 외면에 문양이 없는 등의 특징으로 보아 사천 우천리 옹기와 형태상으로 유사하여 16세기~17세기에 조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덕현리 옹기가마 출토 옹기는 사천 우천리 옹기와 형태적으로는 유사하나 음각파곡선문, 수화문, 목질띠+요철 등의 좀 더 늦은 시기에 나타나는 외면 문양이 확인되고 있어 17세기~18세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⁵¹⁾ 덕현리유적은 옹기가마와 공방지 외에도 석축, 암거 등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는데 기타 유구에서도 옹기가 주로 출토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뚜껑이 확인되고 기종도 다양하다.⁵²⁾ 외면에 문양이 나타나는 등의 특징으로 보아 18세기 중후반까지 조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울주군 내에서 확인된 12곳 조선시대 옹기가마 중에 17세기 이전 시기의 옹기가마는 동천리유적, 덕현리유적 2곳에 불과하며 그 외는 18세기 이후의 시기에 해당한다.

18세기 이후의 옹기가마는 이전 옹기에 비해 기벽이 좀 더 두터워지고 유색이 갈색, 흑갈색, 암갈색 등을 띠고 조선전기에 보이지 않던 솔, 동이 등의 기종이 확인된다. 내면 박자흔은 동심원문을 비롯해 작은 원문 박자흔이 확인되고 유적별로 덮개와 소성도구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뚜껑류가 다수 확인되었다. 음각선 파곡선문 외에도 근개띠, 목질띠+요철, 수화문 등의 다양한 외면 문양 형태가 확인된다. 천천리유적, 방리유적, 평리 점말유적, 척과리유적, 초천리 내기유적²⁾, 고산리유적, 덕신리 오산유적은 옹기의 구연 형태, 뚜껑 형태 등이 비슷한 특징을 하고 있으며 대체로 표 3.에서 보이는 유형의 구연 형태가 확인되고 있어 이들 유적의 대체적인 시기는 18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⁵³⁾

⁵¹⁾ 외면 문양으로 목질띠+요철이 시문된 것은 하동 고이리유적, 칠곡 가천동유적, 경주 월산리유적 등 17세기~18세기에 해당하는 유적 출토 옹기에서 확인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수화문이 나타나는 것은 18세기~19세기에 해당하는 유적에서 확인되기 시작하므로 18세기 이후가 되어야 수화문은 시문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⁵²⁾ 사천 우천리유적에서도 조선전기에는 없었던 굽동이 기종이 1점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덕현리유적에 이르면 굽동이 기종이 여러 유구에서 다수가 확인되어 조선중기에 이르러 제작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기종으로 추정할 수 있다.

⁵³⁾ 기존에 조사된 옹기가마에 관한 자료와 편년을 통해 볼 때 이들 유적은 대체로 18~19세기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송재선이 정리해 놓은 1909년 한일합방 직전 한국농상공부에

구영리 점촌유적 옹기는 천전리 유형의 옹기 구연부와 뚜껑도 확인되지만 천전리 1, 3 유형의 구연이 투박해져 단면이 역제형을 띠는 형태가 확인된다. 상면이 편평하고 두꺼우며 가장자리에 구멍이 뚫린 [뚜껑 6유형]의 공뚜껑 형태가 확인되고 굽동이와 동이아래 기종이 나타나며 수화문이 시문된 것이 있다. 그리고 광명단 유적이 시유된 듯한 유색에 광택이 있는 옹기편이 확인되어 18세기 특징 뿐만 아니라 20세기대의 옹기 특징까지 확인되고 있다.

봉계리 점골유적 옹기는 18세기~19세기대의 옹기 구연 형태보다 좀 더 두텁고 투박해서 역제형의 형태를 띠고 있어 이들은 19세기에서 20세기대에 해당하는 유적으로 추정된다.⁵⁴⁾

위에서 살펴본 특징을 통해 울주지역 옹기가마의 조업시기별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9. 울주지역 옹기가마 조업시기별 현황표⁵⁵⁾

연번	유적명	시기추정					비고
		16C	17C	18C	19C	20C	
1	동천리 옹기가마						16세기~17세기
2	덕현리 옹기가마						17세기~18세기 중후반
3	초천리 내기 옹기가마①						18세기 ~20세기초
4	천전리 옹기가마						
5	방리 옹기가마						
6	평리 점말 옹기가마						
7	척파리 옹기가마						
8	초천리 내기 옹기가마②						
9	고산리 옹기가마						
10	덕신리 오산 옹기가마						

서 발표한 '권립공음전습소보고' 중 '한국도자기조사서'에 의하면 두동면 봉계리, 범서면 구영동, 웅촌면 내기동, 온북면 고산동에 옹기가마가 각 1개, 2개, 3개, 1개씩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두동면 봉계리 점골, 범서읍 구영리 점촌, 웅촌면 초천리 내기, 안양읍 고산리 옹기가마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이들 유적은 18세기대부터 1910년 일제시대 이전까지는 조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송재선, 앞의 책, 98~113쪽.

⁵⁴⁾ 구영리 점촌유적(범서면 구영리) 및 봉계리 점골유적(두동면 봉계리)도 송재선이 정리해 놓은 일제시대 옹기점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유적이다.

송재선, 앞의 책, 113~151쪽.

⁵⁵⁾ 표 9.에 작성한 조업시기별 현황은 지표조사를 통해 수습된 소량의 유물과 현재까지 정리된 옹기유물의 대략의 편년을 통해 1차적인 정리를 시도한 것이다. 수습된 유물에 일부 특징만이 편중되었거나 또는 지금까지의 옹기편년이 아직은 명확히 체계화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앞으로 좀 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연번	유적명	시기추정					비고
		16C	17C	18C	19C	20C	
11	구영리 점촌 옹기가마						18세기~20세기
12	봉계리 점골 옹기가마						19세기~20세기

V. 맺음말

지금까지 울주군 내에서 확인된 12곳 옹기가마의 분포와 유적별로 수습된 옹기의 특징을 살펴보고, 조선시대 옹기의 변화과정을 통하여 울주 옹기의 조업 시기를 알아보았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울주지역은 16세기~17세기에 해당하는 동천리 옹기가마를 비롯하여 조선시대 중후반기 동안 줄곧 활발한 옹기조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온양읍 외고산 마을을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은 21세기 현재까지도 활발한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찻물이 시유된 옹기가 확인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유적으로는 15세기~16세기에 해당하는 청도 순지리와 나주 우산리유적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조선전기부터 옹기가 소성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약 20여곳의 옹기가마에서 다양한 옹기가 확인되고 있다.⁵⁶⁾ 이들 유적과 비교 검토해 본 결과 울주군 내에서 확인된 옹기가마는 16세기~17세기경에 해당하는 유적이 1곳, 17세기~18세기경에 해당하는 유적이 1곳, 18세기~19세기경에 해당하는 유적이 10곳인 것으로 파악되었다.⁵⁷⁾ 이미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17세기~18세기대의 덕현리유적과 18세기~19세기대의 천전리, 방리유적의 조사성과를 통해서 조선중기 이후 울주지역 옹기생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蔚山邑誌』의 '旧營店', '内基店' 등의 기록과도 일치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울주군은 풍부한 산림과 태화강, 회야강 같은 큰 하천과 작은 수계 등 천혜의 자연환경이 장기간 옹기가마 조업을 발달시키는 원천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결과는 울주군 내 옹기가마의 분포현황을 확인한 일부 성과에 지나지 않는다. 추후 이 지역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가 좀 더 이루어 진다면 울주군은

⁵⁶⁾ 각주 3) 참조.

⁵⁷⁾ 18세기~19세기대의 10곳 유적 중 구영리 점촌유적은 18세기대부터 20세기에 걸쳐 오랜기간 옹기 조업이 이루어졌으며, 봉계리 점골유적은 좀 더 늦은 시기에 조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인접한 경상도 지역 옹기와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울주 옹기의 생산과 공급에 관한 사실들도 점차 규명될 것으로 기대된다.

■ 투고일 2010년 7월 20일 | 심사완료일 2010년 9월 8일 | 게재확정일 2010년 9월 30일 ■

참고문헌

史料

『世宗實錄地理志』

『慶尙道續撰地理誌』

『蔚山邑誌』

『두동면지』, 2001, 두동면지편찬위원회.

『두서면지』, 2001, 두서면지편찬위원회.

『인양읍지』, 2001, 인양읍지발간추진위원회.

『범서읍지』, 2002, 범서읍지편찬위원회.

『온산읍지』, 2002, 온산읍지간행위원회.

『온양읍지』, 2002, 온양읍지편찬위원회.

『웅촌면지』, 2002, 웅촌면지편찬위원회.

『청량면지』, 2002, 청량면지편찬위원회.

報告書

『강서죽도성지 附:부산 정관 옹기가마터』, 2006, 동아대학교박물관.

『강진 월하리유적』, 2009, 호남문화재연구원.

『고창 용산리요지』, 2004, 호남문화재연구원.

『고흥 성기리 기와가마』, 2007, 남도문화재연구원.

『광주 삼소동 신흥마을 옹기』, 1992, 광주직할시립민속박물관.

『나주 우산리유적』, 2003, 호남문화재연구원.

『무안 피서리 조선 백자요지』, 2003, 목포대학교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울주군』, 2003, 울산광역시.

『사천 류천리 제민창지』, 1996, 경상대학교박물관.

『사천시 사남면 우천리 도요지 시굴조사 결과약보고』, 2003, 경남문화재연구원.

『순천 건천유적』, 2009, 호남문화재연구원.

『영주 상줄동 산 3-6유적』, 2010, 대동문화재연구원.

『영천 해선리 옹기·목단요 유적』, 2007, 성림문화재연구원.

『용인 공세동 불당동 사지 및 사기막골 옹기』, 2010, 불교문화재연구소.

『울산 하삼정유적·방리 옹기요지-울산권 광역상수도(대곡댐)사업 편입부지내 3차 발굴조사』, 2007,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울산 천전리유적(Ⅰ)』, 2004,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울주 덕현리유적』, 2007, 울산문화재연구원.
 『인천 영종도유적』, 2009, 고려문화재연구원.
 『청도 순지리 옹기가마터』, 1994, 경남대학교박물관.
 『청양 광대리 백자생산 유적』, 2009, 공주대학교박물관.
 『청원 쌍청리유적』, 2006, 중앙문화재연구원.
 『칠곡 가천동 옹기요지』, 『대구-춘천간 고속도로 예정지역내 문화유적발굴조사 보고서』, 1991, 경북대학교박물관.
 『칠곡 봉계리유적(Ⅱ구역)』, 2010, 경북문화재연구원.
 『하동 고이리유적』, 1990, 경상대학교박물관.
 『해남 백야리요지』, 2004, 호남문화재연구원.
 박홍국·김영민·차순철·조영상, 2000, 『울산 「언양 자기소」 지표조사 보고-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도요지』, 위덕대학교박물관·울산대학교박물관.

論文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국제학술집』, 2009,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영남대학교.
 김혜숙, 2006, 『19세기 ‘옹기 교유촌’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사학과.
 배보너, 2005, 『조선시대 영남지방 옹기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배보너, 2006, 『조선시대 영남지방 옹기에 관한 연구-제작기법과 관련된 특징을 중심으로』, 『문물연구』제10호.
 배보너, 2007, 『사친 우천리 유물을 통해 본 조선시대 옹기의 특징』, 『경문논총』창간호.
 성현주, 2008, 『기장지역 도자기의 제작기법과 도자사적 성격』, 『기장 도자사 연구』, 기장군·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정영화, 2002, 『울산 옹기의 특징과 관광자원화』, 『울주연구』창간호.
 조영상, 2000, 『울주 하잠리 소재 조선 초기 도요지에 대한 일고찰』,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單行本 및 圖錄

『사진으로 보는 조선시대-생활과 풍속』, 1987, 서문당.
 『옹기를 만드는 사람들』, 2009, 국립문화재연구소.

『울주지명사』, 1986, 울산문화원.
 『자연을 담은 그릇, 옹기』, 2006, 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
 『한국고고학개칭용어집』, 1984, 한국고고미술연구소.
 『한국지명총람9(경남편)』, 2003, 한글학회.
 『호남지방의 옹기문화』, 1997, 원광대학교박물관.
 송재선, 2004, 『우리나라 옹기』, 동문선.
 윤숙자, 2002, 『전통부엌과 우리살림』, 떡·부엌살림박물관.
 정병락, 1998, 『옹기와 대화』, 옹기민속박물관.
 정진영, 2008, 『옹기장 사기장-부산광역시 기장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의 민족생활어』, 글누림.

기타

『제3의 전통, 옹기의 원류를 찾아서』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특별전 기념 국제학술대회, 2000,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울주옹기사-학술조사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2010, 울주군·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Abstract

Distribution of Onggi Kiln And Acquired Relics in Ulju

Bae Bo Ni

Onggi is one of the vessels the people used that is deeply related with their everyday life. It is kind of pottery widely used for storage and transport containers until the modern age with ceramics for tableware but it was very far from pottery studies and there are not enough researches for its origin, types, uses and a process of spread. This study was promoted by Ulju-gun and Onggi from the Joseon Dynasty was investigated about its characteristics and time era through 12 remains in Ulju.

In Ulju-gun, Onggi operation was mainly in the middle and late Joseon Dynasty including Dongcheon-ri Onggi klin in the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ies. The work is still in operation around Oegosan village in Onyang-eup.

The earliest grazed Onggi in Korea is from the fifteenth and sixteenth centuries equivalent to Sunji-ri in Cheongdo and Usan-ri in Naju. Therefore we could know the origin of Onggi is from the early days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re are about 20 relics in this period all over the country. As a result of the Ulju-gun research, 1 is for the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ies, 1 is for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ies and 10 are for the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ies among the 12 sites. The findings ascertain that Onggi operation was conducted continuously during the entire Joseon Dynasty. Ulju Onggi production history after the middle of the Joseon Dynasty has been verified through results already studied about Duckhyun-ri in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ies, Cheonjeon-ri and Banri historical sites in the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ies. Futhermore we do know the substance from literature of 'Guyoungjeom' and 'Naegijeom' in 『Ulsaneupji』

and it is helpful for the study of Onggi production after the nineteenth century.

This time the research was limited to remains' indexes confirming their status of distribution but more archaeological studies are expected to find out about production and supply of Ulju Onggi by comparions with an adjacent region, Gyeongsang-do's Onggi.

Key Words : Onggi, Onggi klin Ulju-gun, Joseon Dynasty, Oegosan, containers